

GILLETTE & L'ORÉAL, WOMEN USA

VOL. IV

Missouri • Montana • Nebraska • Nevada
New Hampshire • New Jersey
New Mexico • New York



FERDINANDO FREGA ✨

GILLETTE & L'ORÉAL, WOMEN USA — VOL. IV

L'ORÉAL THROUGH GILLETTE · 12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미국 횡단의 네 번째 구간, 대평원에서 동부 해안까지.

제0장 — 공통의 서장

이 첫 장은 미국의 여성들 시리즈 여섯 권 모두에 공통으로 실린 장이다. 여기에 전문을 신뢰, 시리즈를 반복 없이 차례로 읽을 수 있도록 접어 두었다.

제0장

이곳에서 세상은 영토가 아니다: 한계다. 북극은 반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며, 실수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양은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한다, 말없이, 기억도 없이. 기온은 기상 정보가 아니다: 포식자다. 밤은 몇 달 동안 이어지며 생각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윤곽을 일그러뜨리고, 그들의 의지를 삼킨다.

공동체는 몇 되지 않고, 작고, 닫혀 있다. 이누이트, 유픽, 북극의 민족들은 아무도 머물기를 택하지 않을 곳에서 산다. 이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집단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 쓸모가 없으면 짐이 된다. 그리고 짐이 된 사람들은 침묵 속으로, 눈 속으로,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 환경의 논리 속으로 사라진다.

과학 기지는 또 다른 종류의 냉기를 더한다: 위계의 냉기다. 이곳에서 여자는 드문 존재, 적응하거나 무너져야 하는 변칙이다.

이곳에는 '실종'이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것을 지우는 하양만 있을 뿐이다.

이누이트와 유픽의 여자들

북극의 소녀는 귀하게 자라지 않는다: 준비된다. 일찍부터 추위와 어둠과 굶주림을 견디는 법을 배운다. 씨족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서 정체성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것이다. 여자는 가족과 공동체의 짐을 진다: 음식, 불, 아이들, 가족, 돌봄. 아무도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 아무도 연약함을 말하지 않는다. 우울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다. 폭력은 존재하지만 증인이 없다.

과학 기지의 여자

교육받았고, 유능하고, 규율에 익숙하다. 그녀는 연구원으로, 기술자로, 의사로 도착한다. 그리고 곧 북극이 자격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에서는 정신의 강인함만이 중요하다. 남자들의 위계가 그녀를 지배하고, 약해 보이는 어떤 기색도 나약함으로 해석된다.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이다: 극도의 자제력이 요구된다.

서구에서 온 '바깥'의 여자

자유 속에서 자란 그녀는 추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착한다. 그러나 이곳은 그녀를 부순다: 고독, 비좁은 공간, 끝없는 침묵. 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계 장치다. 그리고 남자들이 설계한 기계 장치 안에서 여자는 사라지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한다.

세상 끝으로 가는 여행

이웃인 Antonio, 다들 Nino라고 부르는 그는 몇 년째 노르카프와 백야, 어둠이 없는 몇 달 이야기를 했다. 주머니 속에 넣어 둔 꿈, 불가능한 무언가 같은 것이었다. 5월의 어느 아침, 나는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이 말만 했다. "여행 가방 싸요. 한 시간 뒤에 다시

올게요. 30일 뒤에 돌아올 거예요.” 그는 놀라서, 기뻐서 나를 바라 보았다. 걱정이 된 그의 아내가 우리 계획이 뭐냐고 물었다. “꿈을 쫓는 거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차에 올랐다. 아내들은 미친 사람 보듯 우리를 보았다. 하지만 이 여행은 진짜였다. Nino는 벌써 질문투성이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가져가야 해요?” “진정해요.” 내가 말했다. “54시간이면 도착해요. 고작 5,000km예요. 새 Range Rover를 타고 가잖아요. 드라이브를 즐겨요.”

300km마다 멈춰야 했다: 나보다 열두 살 많은 그에게는 그만의 리듬이 있었다. 나는 물과 마실 것을 챙겼고, 그는 커피와 생리적인 불일을 챙겼다. 그리고 멀리 갈수록 그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 그 끝없는 길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것들이었다.

차 안에 단둘인 남자 두 명은 언제나 여자 이야기를 한다. 그는 평생 아내 한 사람밖에 몰랐다. 나는 웃었다.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도 다 그래요.”

그는 60시간을 운전하면서 어떻게 제정신을 유지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러시아 이야기를 했다, 스물두 살 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를 만나러 51시간을 운전했던 일을. “거리는 한계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핑계일 뿐이죠. 나는 핑계를 가져 본 적이 없어요.”

하얀 세계에 도착하다

우리는 노르웨이에 들어섰다. 길가의 숙소 하나. 차는 거기 두고 썰매로 계속 갈 참이었다.

가이드는 온몸을 감싸고 있어 속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고글을 벗었을 때에야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노르웨이 여자, 말이 없고, 단도직입적이고, 얼음 같았다. Nino는 썰매 가운데, 그녀는 앞, 190cm의 나는 뒤에서 맨 끝을 맡았다.

아직 낮이었다. 시계는 시각을 알려 주었지만, 밤인지 아침인지는 알려 주지 않았다. 백야였다. 우리는 노르카프에 도착해 있었다.

Nino는 울었다. 나를 끌어안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게이로 알겠어요.” 우리는 웃었지만, 우리는 세상의 끝에 있었다.

그리고 혹한이 찾아왔다: 영하 52도.

진짜 북극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우리를 금속 컨테이너로 데려갔다. 지독하게 무겁고 숨을 두른 방한복, 복잡한 지퍼로 여미는 옷이었다.

나는 가이드 비용을 냈다. Nino는 남자 몇 명과 함께 이글루 하나에 남겨졌고, 나는 다른 이글루에 한 가족과 함께 남겨졌다: 일흔에서 여든 사이의 노인 한 명과 서른에서 쉰 사이의 여자 세 명.

단한 세계였다. 단순했다. 잔혹했다.

남자는 한쪽에 물러나 있었다. 여자들이 일의 박자를 이끌었다. 그리고 화장실은 이글루에서 5미터 떨어진 언덕이었다: 똥은 땅에 닿기 전에 얼어 버렸다. 나의 첫 오줌은 노란 북극의 별이 되었다. 북극이 내게 건넨 인사였다.

중년의 여자 Magi는 영어를 조금 했다. 나머지는 몸짓, 눈빛, 손이었다. 추위의 언어.

방한복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사타구니를 만져 숨은 지퍼를 보여 주었다. 악의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기능일 뿐이었다. 생존.

이글루에서의 사흘

그들은 음식을 가져왔다. 훈제 생선, 날생선, 대구 간, 고래 뱃살. 그리고 상어 완자. 선택은 없었다. 대안도 없었다. 자연이 내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다음 나는 마셨다: 붉은 액체를. 와인인 줄 알았다. 거르고, 끓이고, 달게 만든 고래 피였다. 나는 그것을 마셨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힘을 주었다. 원초적인 에너지. 코카인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몸속으로 들어오는 북극이었다.

여자들은 나를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냥하러 나갔다. 나는 쉬면서 피를 마셨다. 전화도, 인터넷도, 컴퓨터도, Nino도 없는 사흘. 나와 그들뿐이었다.

밤은 없었다. 빛과 불과 얼음과 숨결만 있었다.

세 여자가 잠자리에 누웠다. 나는 자리를 찾았다. 가장 젊은 여자가 팔을 들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다.

고맙다는 뜻으로 돈을 좀 건네려 했다. 그들은 거절했다. 그저 포옹을 원했다. 그리고 더 가깝게 느끼도록 칼라브리아 말 몇 마디를.

거기서 나는 진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 사고팔 수 없는 선물.

가이드의 작별

사흘 뒤 가이드가 왔다. 그녀는 세 여자와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나는 밖에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세계, 그들의 법이었다.

컨테이너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가이드가 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채. 단도직입적으로. 북유럽 사람답게.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피부는 우유처럼 하얗다. 그녀의 눈은 8월의 하늘처럼 파랬다.

그녀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안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약속 하나만 남겼다. "필요한 게 있으면 편지를 써요. 도와줄게요." 그녀는 돈마저 거절했다. 아름다운 여자였지만, 외로웠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 추위가 용서하지 않는 외로움.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Nino를 데리러 갔다. 그는 신이 나 있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내와 약속이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자기의 사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다. 오직 종이와만 나누었다.

그렇게 Nino가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또 다른 목적지. 또 다른 만남.

환영한다.

에필로그

북극은 당신을 데려가지 않는다: 당신을 바꾼다. 그리고 결코

당신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는다. 남자들은 빛과 침묵과 사진과 꿈을 찾아 북극에 온다. 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머문다.

남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한다. 여자들은 자기가 겪은 것에 대해 침묵한다.

남자들은 돌아간다. 여자들은 남는다. 추위 속에, 눈으로 지은 집 속에, 아무도 듣지 않는 침묵 속에 남는다. 자신들을 기리지 않는 공동체를 떠받치기 위해 남는다. 아이들과 노인들과 낯선 이들을 지키기 위해 남는다. 보이지 않는 채로 남는다.

나는 그곳에서 단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왔다: 아름다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러나 혼자인 여자.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 비극적인 의미에서.

성찰

북극은 몸을 죽이지 않는다. 존재를 죽인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양이다: 여자들이 살아가는 동시에 사라지는 곳.

그래서 나는 쓴다. 극한의 장소들은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의 땅이 나를 낳았고, 나머지 세상은 나를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맞아 준다.

북극의 절대적인 하양에서, 나는 미국의 절대적인 혼란 속으로 내려갔다.

미국

불가능한 임무

미국 회사에서 18년을 일하면 세상 어떤 회사도 줄 수 없는 것을 얻는다: 일의 문화, 절차, 분명한 사명, 그리고 이론이 아닌 가치 체계—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다.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당신 안에 지어 준다.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뉴욕 사무소에 있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을 제안받았다. 승진이 아니었다. 전근도 아니었다. 실험이었다.

미국 안에서 인간관계의 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비밀 프로그램. 그들은 매니저도, 심리학자도, 트레이너도 고르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골랐다. 그리고 내 이름이 나왔다—영업에서 18년을 보낸 나였는데도. 그들은 직책을 보지 않았다: 머리를 보고 있었다.

시험은 설명하기는 간단했고 해내기는 극도로 어려웠다:

1년 동안 미국의 50개 주를 방문할 것, 도시는 직접 고르고 각 도시에 적어도 일주일의 머물 것.

마지막 2주는 강제 휴가였다. 모든 비용은 그들이 댈 것이었다. 나는 그저 살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다. 인간적이고, 건조하고, 정확한 기록을.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집에 알렸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매달 오는 생필품이 도착했는지만 알고 싶어 했다. 나는 미국에서의 1년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다음 달을 맞으려 하고 있었다.

만일을 위해 내 급여는 이탈리아의 내 은행 계좌로 곧장 입금되었다. 그것은 내게 이렇게 말하는 정중한 방식이었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가진 것으로 살아라. 네가 정말 누구인지 보자.”

15년이 지나서야 나는 나의 원래 보고서들과 분석들, 그들이 나에게 대해 모아 둔 자료를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거기서 태어났다. 나는 이 책을 출간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단 하나의 조건으로: 이 일을 의뢰한 회사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 것.

상관없다. 이 이야기는 로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직접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에 있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먼 곳에서 시작할까?

논리적인 선택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였다:

1. 나는 실험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정신은 맑고, 주의력은 최대였다.
2. 극단에서 시작하면 진로를 바로잡으며 여행을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

보스턴이나 시카고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었다. 국경에서 시작해야 했다. 서류상으로만 미국인 곳에서.

나는 알래스카의 주도 주노를 골랐다. 고립된 곳. 배나 비행기로만 닿을 수 있는 곳. 누구의 것도 아닌 도시. 출발하기에 완벽한 곳.

자원을 최적화하라

떠나기 전, 나는 미국인이 무엇보다 존중하는 일을 했다: 관광객이 아니라 프로처럼 준비를 갖춘 것이다.

국내 노선망이 가장 넓은, 가장 인기 있는 항공사 세 곳에 전화했다. 한 시간도 안 되어 60% 할인된 국내선 항공권 50장 묶음을 샀다.

기간 제한 없음. 날짜 제한 없음. 제약 없음. 조건은 단 하나: 1년 안에 쓸 것.

호텔 체인, Uber 택시, 렌터카 회사와도 똑같이 했고, 그런 다음 일정표를 제대로 짰다, 구간과 방식은 정하되 시간은 정하지 않은 일정표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진짜 성공이었다. 내가 움직일 줄 안다는 첫 번째 증거였다. 미국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회사가 그 거래를 보았을 때, 그들은 미국 문화가 언제나 하는 일을 했다: 신뢰도를 확인한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상치 못한 일, 거리,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가? 나는 독립적인가?

그래서 떠나기 전, 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해 두었다:

신용카드의 월 한도를 최소 10만 달러로 확보해 둔 것이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율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 평가받을 수 없다.

그 순간부터 프로그램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었다. 사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여행한다

알래스카는 지리상으로만 미국의 일부다. 그곳은 또 다른 세계다.

여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곳이다. 신고가 결코 목적지에 닿지 않는 곳. 도시들이 야생의 대륙 한가운데 떠 있는 문명의 섬에 불과한 곳.

주노는 나의 첫 시험이었다: 나라의 다른 곳과 이어지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주도. 미국처럼 느껴지지 않는 미국의 한 조각.

여기서 나는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여행은 지리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인간적인 것일 것이다.

블록 1 (제1권)

앨라배마 – 알래스카 – 애리조나 – 아칸소 – 캘리포니아 – 콜로라도 – 코네티컷 – 델라웨어 – 플로리다 – 조지아

블록 2 (제2권)

하와이 – 아이다호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아이오와 – 캔자스 – 켄터키 – 루이지애나 – 메인 – 메릴랜드

블록 3 (제3권)

매사추세츠 – 미시간 – 미네소타 – 미시시피 – 미주리 – 몬태나 – 네브래스카 – 네바다 – 뉴햄프셔 – 뉴저지 – 뉴멕시코

블록 4 (제4권)

뉴욕 – 워싱턴

블록 5 (제5권)

노스캐롤라이나 – 노스다코타 – 오하이오 – 오클라호마 – 오리건
– 펜실베이니아 – 로드아일랜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블록 6 (제6권)

사우스다코타 – 테네시 – 텍사스 – 유타 – 버몬트 – 버지니아 – 웨
스트버지니아 – 위스콘신 – 와이오밍

미주리

미주리는 모순으로 가득한 주다. 한쪽에는 차분한 중서부가, 다른
쪽에는 한 번도 거칠기를 멈춘 적 없는 남부가 있다. 미국에서 가
장 분열된 땅 가운데 하나다: 험한 동네를 품은 세인트루이스와 캔
자스시티, 평행 세계에 존재하는 백인 교외, 가난하고 더디게 움직
이는 시골, 그리고 말은 많지만 해결하는 것은 적은 정치 체제.

평범함이 불편을 감추는 주, 겉도는 미소가 심각한 문제를 덮는
주, 아무것도 괜찮지 않을 때조차 “다 괜찮아”라고 하는 주다.

이곳의 여자들은 폭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압박 아
래에서 사라진다: 가족, 일, 전통, 가난, 밑바닥에 깔린 폭력, 허약한
의료 체계.

미주리는 관습으로 여자를 지운다. 모두가 그녀가 견디기를 기대
한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서 사라질 때까지 견딘다.

세인트루이스의 여성 – 35세

세인트루이스는 두 세계에 존재하는 도시다: 하나는 역사가 풍부
하고, 다른 하나는 폭력과 방치와 인종 불평등에 갇혀 있다.

이곳의 여성은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한다: – 위험한 동네 –
허약한 학교 – 낮은 임금.

그녀는 도시의 필수적인 망 안에서 일한다: - 진료소 - 슈퍼마켓 - 돌봄 지원 - 요식업 - 기초 교육.

그녀는 체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것을 떠받친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떠받치는 동안, 아무도 그녀를 떠받치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다: 날마다의 모든 위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그녀인데도, 도시의 재건에 대해 그녀에게는 발언권이 없다.

‘완벽한’ 교외의 여성 - 40세

대도시 바깥에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교외가 있다: 깨끗한 거리, 좋은 학교, 잘 정돈된 집.

이곳의 여성은 가난하지 않지만, 자유롭지도 않다.

그녀는 지켜야 한다: - 높은 가족 이미지 - 흠잡을 데 없는 아이들 - 끊임없는 사교 활동 - 꽉 찬 일정 - ‘티 없는’ 결혼 -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생활 수준. 압박은 소리 없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녀는 무너질 수 없다. 속도를 늦출 수 없다. 연약함을 보일 수 없다.

그녀의 부재는 정신적이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존재한다.

시골 여성 - 49세

미주리의 시골은 더디고, 보수적이고, 닫혀 있다. 집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서비스는 최소한이며, 전통은 무겁다.

이곳의 여자들은 놀라울 만큼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 산다: - 불안정한 일자리 - 의료에 닿기 어려움 - 대가족 - 널리 퍼진 중독 - 사회생활을 통제하는 교회 - 역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선택 없는 의무의 삶이다. 문제가 있으면 혼자 처리한다. 무너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이다: 그녀는 거리와 전통 속으로 사라진다.

산업과 육체노동의 여성 - 37세

미주리에는 중간 규모의 산업이 엄청나게 많다: 창고, 물류 조정, 조립 라인, 제조 공장.

이곳의 여자들은 고된 육체노동을 한다: - 포장 - 생산 라인 - 야간 교대 - 운반 - 품질 관리 - 조정 보조.

뺏아 버린 몸, 낮은 벌이, 불가능한 근무 시간. 주가 필요로 하는 일이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일이다. 그녀의 부재는 육체적이다: 그녀는 부서지는데,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에필로그 - 미주리

미주리는 겉보기의 평범함으로 변성하는 주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그녀는 험한 동네와, 지나치게 사교적인 교외와, 고된 공장과, 더디게 움직이는 시골을 다스린다.

하루하루가 조용한 전투다. 그리고 조용한 전투가 가장 파괴적이다.

미주리는 단번에 여자들을 쓸어버리지 않는다. 아무도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는 습관으로 쓸어버린다.

성찰 - 미주리

이 책의 주마다 한 가지 유형의 부재가 드러난다. 미주리는 '조용한' 부재를 드러낸다: 일상과, 사회적 기대와, 모두에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부담에서 태어나는 부재.

이곳에서 여자들은 모든 사회 계층을 묶어 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는다.

미주리는 가르쳐 준다, 지워 버리는 데에는 증오도 갈등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여자들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장은 꼭 필요하다: 떠받쳐 주지 않는 평범함은 덧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몬태나

몬태나는 순수한 광대함이다: 거대한 산, 끝없는 길, 끝없는 숲, 외딴집, 살을 베는 겨울.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살기 가장 힘든 주 가운데 하나다.

이곳의 여자들은 갈등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지리 때문에, 고립 때문에, 시골의 사고방식 때문에, 정서적 고독 때문에 사라진다. 침묵이 소음보다 무거운 주다.

몬태나는 건담을 요구한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 건뎌야 하는 사람은 여자들이다.

외딴 오지의 여성 - 51세

이곳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게에서 30km 떨어져 살 수도 있다. 가장 가까운 진료소에서 한 시간. 제대로 된 병원에서 두 시간.

이 지역에 사는 여자들은 마주한다: - 극한의 추위 - 즉각적인 도움의 부재 - 외면당하는 건강 문제 - 손봐야 할 낡은 집 - 가족에 대한 전적인 책임 -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게 될 현실적인 두려움.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닿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사라진다.

목장 가족의 여성 - 39세

몬태나는 목축으로 번성한다. 소, 말, 큰 짐승들, 그리고 육체노동.

이곳의 여성은 모든 것을 한다: - 짐승 돌보는 일을 돕는다 - 모두를 위해 요리한다 - 장부를 관리한다 - 차량을 몬다 - 비상사태를 처리한다 -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아이들을 키운다.

그녀는 남자처럼 일하지만, '집안의 일원'으로 여겨진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는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마을의 여성 - 44세

몬태나의 작은 마을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다. 공동체는 작고, 모두가 모두를 알며, 아무도 변하지 않는다.

여성은 반드시: - 어머니여야 한다 - 믿음직해야 한다 -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 헌신적이어야 한다 - 언제나 곁에 있어야 한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 수 없다. 자기 문화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다.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다.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다.

자연 관광업에서 일하는 여성 - 33세

몬태나는 공원과 호수와 가까운 엘로스톤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다. 엽서 뒤에는 호텔, 식당, 야외 활동, 시설 관리, 조정, 청소를 꾸러 가는 여자들이 있다.

고된 교대 근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한 임금, 외딴 지역에서의 삶. 안정은 없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이 업계는 그녀로 먹고살지만, 그녀는 결코 평온하게 살지 못한다.

에필로그 - 몬태나

몬태나는 눈부신 자연과 맹렬한 고독이 뒤섞인 곳이다. 이곳의 여자들은 거리 속으로 사라진다: 물리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거리. 외딴집과 목장과 가족과 작은 마을과 관광을 하나로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동안,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

성찰 - 몬태나

이 책의 주마다 한 가지 형태의 부재가 드러난다. 몬태나는 모든 것을 삼키는 지리가 만들어 내는 부재를 드러낸다.

이곳에서 여자들은 폭력이나 극심한 가난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몇 마일이고 이어지는 허무로, 고립시키는 겨울로, 변하지 않는 문화로, 거절할 수 없는 역할로 지워진다.

느리고 조용한 지워짐이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알아보기 가장 어려운 지워짐 가운데 하나다.

네브래스카

네브래스카는 탁 트이고, 곧고, 평평한 땅이다. 드넓은 들판, 끊임 없는 바람, 끝없는 하늘. 바깥에서 보면: 평온. 안에서 보면: 고립, 더듬, 보수적인 공동체, 고된 농사일, 그리고 극히 적은 기회.

중서부와 서부 사이 중간쯤에서 살아가는 주지만, 어느 쪽의 장점도 갖지 못했다.

이곳의 여자들은 혼돈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짐스러운 평범함 때문에, 농사의 반복 때문에, 변하지 않는 역할 때문에, 지리적 고독 때문에 사라진다.

네브래스카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소진시킨다.

농장의 여성 - 40세

네브래스카의 여성은 농장의 없어서는 안 될 일부다: - 새벽에 일어나기 - 돌봐야 할 짐승 - 모두를 위한 식사 - 집안 회계 - 살피야 할 작물 - 집 관리 - 키워야 할 아이들 - 갑작스러운 비상사태.

그녀는 남자들만큼, 흔히 그 이상으로 일한다. 그러나 그녀는 '무직'으로 기록된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그녀는 가치를 만들어 내지만, 통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은 마을의 여성 - 46세

몇천 명이 사는 고장들, 모두가 모두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곳.

여성은 이래야 한다: - 곁에 있는 어머니 - 안정된 아내 - 존경받는 인물 - 교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 공동체를 떠받치는 사람.

그녀는 지름길도, 위기도, 갑작스러운 변화도 허락받지 못한다. 그녀는 남들이 정해 준 고정된 역할 안에서 산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그녀에게는 자리가 있지만, 목소리는 없다.

가벼운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여성 - 32세

네브래스카의 도시들 — 링컨, 오마하, 그랜드아일랜드 — 에서는 여자들이 날마다의 일을 한다:

- 계산원 - 청소 - 요식업 - 학교 보조 - 양로원 - 사무 보조

낮은 임금, 쪼개진 교대 근무, 전망 없음.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다: 그녀 없이는 도시가 돌아가지 않지만, '발전'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는다.

거리(距離)의 여성 - 53세

네브래스카는 제대로 된 마을 하나 보지 못한 채 두 시간을 달릴 수 있는 주다. 이 거리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된다.

도시 바깥에 사는 여성은 마주한다: -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먼 길 - 부족한 의료 - 혹독한 겨울 - 외딴집 - 단조로운 일상 - 진짜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킬로미터 속으로 사라진다.

에필로그 - 네브래스카

네브래스카는 단순해 보이는 땅이지만, 그 단순함은 겉모습일 뿐이다.

이곳의 여자들은 사라진다: - 보수 없는 농사일 속으로 - 닫힌 공동체 속으로 - 극단적인 거리 속으로 - 서비스의 부족 속으로 - 경직된 역할 속으로.

땅과 전통과 침묵으로 이루어진 부재다.

성찰 - 네브래스카

주마다 한 가지 형태의 부재가 드러난다. 네브래스카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일상이 쌓아 올린 부재를 드러낸다.

눈에 띄는 폭력도, 극적인 위기도 없다. 되풀이되는 삶, 인정받지 못하는 수고, 내려놓을 수 없는 역할이 있을 뿐이다. 네브래스카는 여자들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주이며,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는 이 장을 받을 만하다: 가장 흔한 삭제는 평범해 보이는 삭제이기 때문이다.

네바다

네바다는 겉모습 위에 세워진 주다. 불빛, 카지노, 호텔, 엔터테인먼트, 관광, 도박, 끝없는 밤 문화. 세상이 자유와 과잉과 가능성으로 여기는 진열장.

진실은 정반대다.

네바다는 여성의 몸이 가장 쉽게 이용되고, 착취되고, 소비되고, 대체되는 곳 가운데 하나다. 여자들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상품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곳.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현대적이고, 명료하고, 의도적이다. 우아하고, 끊임없고, 깨끗한 지워짐. 불가능한 근무 시간, 야간 교대, 외모에 대한 압박, 닳아 버린 정체성, 그리고 관광 산업이 강요하는 역할로 이루어진 지워짐.

카지노와 호텔의 여성 - 33세

라스베이거스가 번성하는 것은 오로지 수천 명의 여자들이 꾸러가기 때문이다: - 프런트 - 객실 관리 - 식당 - 바 - 엔터테인먼트 - 고객 서비스 - 조정 - 관광 콜센터.

야간 교대, 사라진 주말, 존재하지 않는 휴가, 끊임없는 압박. 여자들은 속에 남은 기력이 하나도 없을 때조차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녀의 부재는 육체적이고 심리적이다: 그녀는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경험의 일부'로 쓰는 체제 안에서 일한다.

밤의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 - 29세

밤의 네바다는 화려하지 않다. 가혹하다. 불빛과 음악과 쇼 사이에서 삶들이 소진된다:

- 호스티스 - 댄서 - 바텐더 - 프로모터 - 이미지와 외모로 존재하는 일에 관련된 역할들

당신의 몸은 계약의 일부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들은 1분 만에 당신을 바꿔 버린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도덕적이다: 일은 그녀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이미지를 요구한다.

무대 뒤를 꾸려 가는 이민 여성 - 41세

초대형 호텔 뒤에는 수백 명의 이민 여성들이 있다: 필리핀, 멕시코, 아이티, 중앙아메리카 출신.

관광객이 일하는 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 산업용 세탁소 - 월 새 없는 청소 - 지하 주방 - 거대한 창고 - 저녁 시간의 조정 - 객장 준비

숨겨진 삶. 지친 몸. 비인간적인 교대 근무. 그녀의 부재는 체제적이다: 그녀는 꼭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다.

라스베이거스 바깥에 사는 여성 - 52세

네바다는 불빛만이 아니다. 그것을 둘러싼 사막이기도 하다: 작은 마을, 낮은 집들, 드문 서비스, 고립된 산업.

이곳의 여자들은 마주한다: - 감당할 수 없는 비용 - 제한된 의료 - 교통수단의 부족 - 엄청난 거리 - 거칠고 잘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 - 제한된 기회.

그녀는 세상이 이 주와 연관 짓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불빛의 네바다가 아니라 진짜 네바다에 산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 네바다

네바다는 퍼포먼스 위에 세워진 주다. 모든 것이 이미지, 경험, 엔터테인먼트다.

여자들은 이 기계를 돌리는 말없는 엔진이다: 호텔, 카지노, 식당, 엔터테인먼트, 시설 관리, 조정.

그런데도 그들은 가장 낮게 평가받는다. 가혹하고, 소진시키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떠받치는 것이 그들이다.

네바다는 그들을 쓰는 방식 그대로 그들을 지운다.

성찰 - 네바다

주마다 부재의 한 얼굴이 드러난다. 네바다는 가장 현대적인 얼굴을 드러낸다: 경제적 기능으로 축소된 여자들.

그녀를 지우는 것은 가난이 아니다. 체제다.

만들어진 부재다: 조용하고, 우아하고, 기회로 위장한 부재. 여자들에게는 천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을 소진시킬 방법도 천 가지다.

그래서 이 장은 결정적이다: 불빛 한가운데에서는 날마다 그 불을 켜는 사람이 덜 보이기 때문이다.

뉴햄프셔

뉴햄프셔에는 자유, 숲, 호수, 언덕, 완벽한 마을, 조용한 길, 그리고 거의 없다시피 한 세금이 있다. 바깥에서 보면 미니멀한 낙원 같다: 혼돈도, 소음도, 거대한 도시도 없다. 질서와 자연뿐이다.

문제는 완전한 자유가 흔히 완전한 고독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 공공 서비스에 투자를 덜 하면, 그 짐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무엇보다 여자들에게—떨어진다.

이곳에서 여자들의 부재는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고립이고, 경직된 문화적 관습이고, 가족의 압박이며, 진짜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이다.

뉴햄프셔는 공격하지 않는다.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둔다.

작은 공동체의 여성 - 47세

뉴햄프셔의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인다. 모든 것이 닫혀 있다.

여성은 이래야 한다: – 믿음직한 어머니 – 존경받는 사회적 인물 – 학교 자원봉사자 – 공동체 안에 늘 있는 사람 – 지역의 규범에 따른 ‘좋은 사람’.

그녀는 실수할 수 없다. 규범에서 너무 멀리 벗어날 수 없다. 정서적 위기를 허락받지 못한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그녀에게는 역할이 있지만, 자유는 없다.

추위와 거리 속에 사는 여성 - 52세

뉴햄프셔는 크지 않지만, 외딴 지역과 서로 멀리 떨어진 집들과 겨울이면 장애물이 되는 길로 가득하다.

이곳의 여성은 이것들과 함께 산다: – 몇 달 동안의 눈 –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리 – 늦게 치료받는 건강 문제 – 정신적 고립 – 틈을 남기지 않는 집안일의 반복 – 지역의 부족한 의료.

그녀가 넘어지면, 기다린다. 아프면, 몇 마일을 운전한다. 정서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침묵과 추위 속으로 사라진다.

필수 일자리 - 38세

중간 규모의 도시들—콩코드, 맨체스터, 내슈아—에서는 여자들이 기본 서비스를 꾸려 간다:

– 학교 – 진료소 – 노인 돌봄 – 관공서 – 초등 교육 – 행정 서비스

낮은 급여, 급여보다 훨씬 큰 책임, 끊임없는 정서적 짐.

그녀의 부재는 운영상의 것이다: 그녀는 복지 체계에 남아 있는 것을 붙들고 있지만, 주는 그녀의 분야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

그녀는 꼭 필요하지만, 지쳐 있다.

관광지에서 저임금 일을 하는 여성 - 33세

주의 북부는 관광으로 먹고산다: 단풍, 호수, 산, 겨울.

완벽한 이미지 뒤에는 이런 여자들이 있다: – 시설을 청소하는 –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 식당에서 일하는 – B&B를 꾸려 가는 – 객실을 정리하는 – 최소한의 관리를 하는.

봄비는 계절과 텅 빈 계절. 불안정한 경제. 진짜 보호는 제로.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모든 것이 그녀 위에서 돌아가지만, 체제는 그녀를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긴다.

에필로그 - 뉴햄프셔

뉴햄프셔는 질서 정연하고 조용하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여성은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녀는 이것들 사이로 사라진다: – 전통적인 역할 – 닫힌 공동체 – 물리적 거리 – 끝없는 겨울 – 부족한 서비스 – 저임금의 필수 일자리.

소동은 없다. 혼돈도 없다. 일상이 되어 버린 고독뿐이다.

성찰 - 뉴햄프셔

주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부재가 드러난다. 뉴햄프셔는 '완벽한' 부재를 드러낸다: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지워짐.

이곳에서 여성은 공동체들을 다스리지만, 그녀를 돌봐 줄 공동체는 없다.

이것이 뉴잉글랜드의 역설이다: 문명화될수록, 여성이 모든 것을 혼자 알아서 해내기를 더 기대한다.

그래서 이 장은 필요하다: 겉보기에 '좋은' 주들도 살기에는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뉴저지

뉴저지는 경계의 땅이다. 연결되어 있고, 정신없고, 비싸고, 통근자로 넘쳐나며, 섞인 가정, 이민자, 거친 동네, 비싼 교외, 잊힌 도시로 가득하다. 이곳은 '다리 건너'의 뉴욕이 아니다. 복잡하고 조각난 주이며, 여기서 여성들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집어삼키는 시스템을 다스린다.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다섯 가지 매우 가혹한 요소에서 비롯된다: -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생활비 -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 - 지치게 하는 통근 - 실제 긴장이 있는 다민족 공동체 - 버티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역할.

뉴저지는 폭력으로 여성을 지우지 않는다. 천 가지 역할 사이에서 존재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녀들을 지운다.

통근하는 여성 - 36세

뉴저지는 통근의 주다. 뉴욕이나 필라델피아로 가기 위해 매일 몇 시간이 버려진다. 지연되는 기차, 감당할 수 없는 교통 체증, 높은 교통비, 그리고 아주 늦은 귀가.

이런 삶을 사는 여성은 '반쯤' 산다: – 절반은 직장에서 – 절반은 대중교통에서 – 절반은 집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집이 가족의 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녀의 부재는 시간의 부재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 그 무엇을 위한 시간도 없다.

그녀는 자투리 속에서 존재한다.

서비스업의 이민자 여성 – 42세

(라틴계, 아이티계, 아프리카계, 필리핀계)

뉴저지는 이민자의 힘으로 번성한다. 이곳의 여성은 주 전체의 무대를 떠받친다: – 부유한 사람들의 집 청소 – 규정 없는 베이비시팅 – 식당 주방 – 요양원 – 시설 관리 – 저임금 기본 서비스

그녀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마주한다: – 낮은 임금 –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 – 막대한 가족 부양 책임.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언어적이다. 그녀는 일하고, 말하고, 적응하지만,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머문다.

그녀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언제나 대체 가능하다.

거친 동네의 여성 – 34세

뉴저지는 부유한 오만만이 아니다. 동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 몇 곳이 이곳에 있다.

– 도시 폭력 – 예산이 부족한 학교 – 실업 – 취약한 의료 – 실질적인 지역 서비스의 부족

이곳에 사는 여성은 다음을 마주한다: – 끊임없는 불안 – 불안정한 일자리 – 비효율적인 교통 – 임금에 비례하지 않는 생활비.

그녀는 한부모 가정의 기둥이고, 사회적 관계망의 등뼈이며, 아무도 자신을 구해 주지 않을 때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고 구조적이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아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부유한 자존심의 여성 - 45세

뉴저지의 다른 얼굴은 부유한 교외다. 거대한 집, 훌륭한 학교, 정돈된 동네.

이곳의 여성들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 산다: - 팍 찬 가족 일정 - 아이들의 활동 - 강요된 봉사 활동 - 흠잡을 데 없는 사회적 이미지 - 지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결혼 - 지나치게 높은 기대.

그녀는 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 공연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녀의 부재는 정체성의 문제다. 그녀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으로 보인다.

에필로그 - 뉴저지

뉴저지는 너무 빠르게, 너무 비싸게 사는 주다. 이 주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여성들이지만, 시스템은 그녀들을 이용하면서 지운다.

- 통근 - 보이지 않는 일 - 부족한 서비스 - 위험한 동네 -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외 - 경직된 가족 역할 - 실질적인 지원 없는 다문화

주는 그녀들 덕분에 돌아가지만, 결코 그녀들의 노력을 바라보지 않는다.

성찰 - 뉴저지

모든 주는 어떤 형태의 부재를 드러낸다. 뉴저지는 너무 많이 기대하고 너무 적게 돌려주는 시스템에서 생겨나는 부재를 보여 준다.

이곳은 중간의 주다. 권력의 중심에 너무 가깝고, 그 기회에서는 너무 멀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끊임없는 압축 상태로 산다. 시간의, 돈의, 에너지의, 정체성의.

하나의 요인 탓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의 합이다.

바로 이것이 뉴저지를 이 책의 중심에 놓는 이유다. 뉴저지는 여성의 부재가 짝 찬 삶에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공간만 빼고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삶.

뉴멕시코

뉴멕시코는 미국에서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가장 힘든 주 가운데 하나다. 순수한 아름다움. 광활한 사막, 붉은 협곡, 원주민 공동체, 오래된 문화, 영성, 침묵. 그러나 이 강렬한 미학 뒤에는 훨씬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

– 역사적인 빈곤 – 만성적인 중독 – 허약한 공공 서비스 – 지리적 고립 – 취약한 학교 – 숨겨진 가정 폭력 – 국경을 넘는 마약 밀매

이곳은 여성들이 우연히 사라지는 주가 아니다. 그녀들이 사라지는 것은 모든 것이 짓누르는 땅에 살기 때문이다. 거리, 역사, 문화, 빈곤, 닫힌 공동체, 불안정한 일자리.

뉴멕시코는 버려진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그 버려짐 속에는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

푸에블로의 원주민 여성 – 43세

뉴멕시코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중 하나가 산다. 푸에블로, 나바호, 아파치 여성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산다: – 오래된 전통 – 그녀를 무시하는 현대 국가.

그녀는 다음을 마주한다: – 예산이 부족한 학교– 최소한의 의료– 과밀한 주거– 낮은 임금–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 문화적, 지리적 고립.

그녀는 대가족을, 공동체 전체를, 무거운 책임을 떠받친다.

그녀의 부재는 역사적이다. 지난 백 년 동안 국가는 그녀의 민족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거의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가난한 지역의 라틴계 여성 – 35세

뉴멕시코는 미국적이라기보다 라틴적이다. 스페인어가 어디에나 있고, 섞인 가정이 있고, 고된 노동이 있다.

라틴계 여성들은 주의 무대 뒤 어디에나 있다: – 청소 – 요식업 – 돌봄 – 가벼운 농업 – 동네 가게 – 공동체 지원.

그녀들은 극도로 낮은 임금과 치솟는 물가 속에 산다. 많은 가정이 버랑 끝에서 산다. 서류가 없으면 상황은 더욱 취약하다. 두려움, 보이지 않음, 실질적인 도움의 부재.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만 결코 대변되지 않는다.

모든 것에서 멀리 사는 여성 – 52세

뉴멕시코는 거대하지만 텅 비어 있다. 아주 작은 마을, 사막 속의 집, 몇 시간씩 떨어진 도시들.

이곳의 여성은 다음을 마주한다: – 완전한 고독 – 멀리 있는 의료 – 전무한 교통 – 혹독한 겨울, 무자비한 여름 – 변하지 않는 일상 – 적은 일자리 – 주변에 널리 퍼진 중독.

그녀가 쓰러져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의사가 필요하면 몇 시간을 운전한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한다.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공간 속으로 사라진다.

관광-영성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 - 30세

뉴멕시코는 '영적인' 관광을 끌어들이는 곳이다. 예술, 명상, 사막, 수련회, 원주민 문화.

시적인 이미지 뒤에는 경제를 떠받치는 여성들이 있다: - B&B- 문화 가이드- 갤러리- 작은 식당- 공예품 가게- 계절 서비스.

변덕스러운 분야다. 성수기에는 훌륭한 수입, 나머지 달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그녀의 부재는 경제적이다. 지역의 아름다움은 돈을 끌어들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그 돈을 붙잡아 두지 않는다.

에필로그 - 뉴멕시코

뉴멕시코는 두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주다.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만성적인 빈곤. 깊은 영성과 정치적 방치. 강한 전통과 허약한 서비스.

이곳의 여성들은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진다. 원주민 공동체, 라틴계 가정, 고립된 사막, 예술의 도시, 최소한의 일자리.

그리고 그녀들이 주를 떠받치는 동안, 아무도 그녀들을 떠받치지 않는다.

소리 없는 부재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덮는다.

성찰 - 뉴멕시코

각 주는 서로 다른 형태의 부재를 드러낸다. 뉴멕시코는 거리와 해결되지 않은 역사가 만든 부재를 드러낸다.

이곳에서 여성은 하나의 힘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함께 그녀를 지운다.

- 지리 - 문화 - 전통 - 빈곤 - 고립 - 가족 역할 - 서비스의 부족
- 정치적 비가시성

오래된 지워짐이다. 거의 대물림되는.

그래서 이 장은 결정적이다. 뉴멕시코는 시간이 잊은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가 잊은 곳이다. 그리고 여성들이 매일 그 대가를 치른다.

뉴욕주

뉴욕은 도시가 아니다. 몸에 충격을 준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당신을 붙잡아 끌고 가는 파도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존재다. 이곳에 발을 들이면 당신은 곧바로 깨닫는다. 도시가 결정하는 것을 당신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백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사막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다. 당신을 지켜보고, 재고, 평가하고, 소모하는 도시이며, 당신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두고 간다.

뉴욕은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당신을 평가한다.

세계의 수도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의 수도이기도 하다. 승자만 보여 주고,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아가게 하는 수천 명의 여성을 잊는 도시. 아무도 자신을 떠받쳐 주지 않는 동안 다른 이들의 삶을 떠받치는 여성들.

뉴욕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있다. 폭력적으로 과시되는 부와 더 이상 목소리가 없는 가난, 5년 만에 얼굴을 바꾸는 동네와 5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동네, 뒤섞이는 언어, 겹치는 문화, 교차하는 몸, 결코 진정으로 서로 말을 나누지 않는 삶들.

끊임없는 움직임 위에 세워진 도시다. 봄비는 기차에 오르고 내리고, 더럽고 눈부신 거리를 걷고, 당신을 버티게 해 줄 일자리를 찾고, 주문을 배달하러 달려가고, 진료소로, 학교로, 집으로, 교대 근

무로, 천 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신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당신이 찢어 낸 것만 주는 땅이다.

뉴욕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조각들을 붙들고 있는 여성들 덕분에 돌아간다. 고층 빌딩의 꼭대기 층에서 일하는 여성들, 아래층에서 바닥을 닦는 여성들, 시간이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동네에서 살아남는 여성들, 당신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언제나 당신을 반쯤 남겨 두는 도시와 맞서는 여성들.

이곳에서 여성은 세 겹의 압박을 동시에 겪는다.

1. 속도의 압박:

속도를 늦추면 당신은 사라진다. 뉴욕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예외를 두지 않는다.

2. 비용의 압박: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비싸다. 집, 시간, 에너지, 정체성. 그리고 하루하루가 재정적 도전이 된다.

3. 존재의 압박: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버텨야 하고, 기능해야 하고, 견뎌야 한다.

그런데 누가 당신을 떠받쳐 주는가?

뉴욕은 아름답고 잔인하다. 진짜 기회를 주지만, 극도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이곳의 여성은 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매일 살아남는 기계다. 학교, 병원, 식당, 청소, 공공 서비스, 교통, 가정, 고층 빌딩, 기업, 동네를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그녀다.

그런데도 도시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중심에 있지 않다. 배경이다. 기능이다. 필요하지만 기려지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뉴욕은 모든 것을 진열하는 도시다. 정말로 도시를 돌아가게 하는 이들만 빼고.

바로 그래서 뉴욕은 이 책에서 다른 자리를 차지한다. 다른 주와 같은 주가 아니다. 미국의 모든 여성 부재가 모이는 지점이다. 경제적, 문화적, 도시적, 언어적, 인종적, 직업적, 그리고 감정적 부재.

돌아가는 모든 것과 돌아가지 않는 모든 것의 축소판이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녀들의 속도가 도시의 속도보다 느려지기만 하면 된다.

뉴욕은 크지만, 한 여성의 삶의 무게를 담을 만큼 크지는 않다. 그리고 이 장이 그것을 증명한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가장 정의로운 도시가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도시일 뿐이다. 그리고 도시의 일상이 내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여성은 침묵 속에 길을 잃는다.

맨해튼

Olivia, 39세 - 미드타운, 고층 사무실, 그리고 바쁜 생활

Olivia는 7시 10분에 지하철을 탄다. 6호선, 서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눈은 이미 이메일의 흐름에 고정되어 있다.

그녀는 미드타운의 유리 건물 27층에서 일한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파는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다. 모두가 숫자, 예측, 분기 목표를 이야기한다. 아무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Olivia에게는 여섯 살 딸이 있는데, 그녀가 딸과 함께 깨어 있는 시간은 하루 두 시간이다. 아침에 옷을 입힐 때, 저녁에 재울 때. 나머지는 맡겨진다. 베이비시터, 학교, 방과 후 활동, 짧은 문자.

상사는 그녀에게 '유연성'을 요구하지만, 유연성은 언제나 한쪽만의 것이다: – 길어지는 회의 – 일정을 벗어나는 통화 – 만들어진 비상사태 –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하는 프로젝트.

맨해튼은 기회의 도시로 팔린다. Olivia에게 맨해튼은 그녀의 시간을 훔쳐서 배달, 세탁, 유료 서비스의 형태로 그녀에게 되파는 도시다.

저녁에 사무실을 나서면, 건물들의 불빛이 조롱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반짝인다. 그녀의 삶만 빼고.

Olivia의 부재는 값싸지 않다.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곳만 빼고 어디에나 있다.

나, Nando는, 속도를 늦출 여유가 없는 사람의 빠른 걸음으로 3번가를 건너는 그녀를 볼 때 단순한 한 가지를 본다. 결코 자신을 떠받쳐 주지 않을 도시를 떠받치는 한 여성.

— Nando

브루클린

Aisha, 31세 – 베드퍼드스타이베센트, 거꾸로 가는 젠트리피케이션

Aisha는 역사적으로 흑인 동네인 베드스타이에서 태어났다. 랩, 역사, 가족, 교회, 그리고 여름 보도 위의 바비큐.

그 뒤에 '예술가들', 투자자들, 새 카페들, 목줄을 맨 순종견들, 그리고 앞뒤 없이 오르는 가격이 왔다. 늘 보던 각본이다.

Aisha는 동네의 공립학교에서 일한다. 그녀의 학생들은 해마다 퇴거 위기를 겪는 가정 출신이다. 어린 시절 반 친구들 중 많은 이가 '재개발' 사업에 밀려나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는다.

그녀는 가르치고, 듣고, 갈등을 다스리고, 지킨다. 낮에는 교사이자 심리 상담사이자 큰언니이자 방어벽이다. 밤에는 세 든 부엌의 식

탁에 앉아 숙제를 채점하며, 언젠가 그 집을 더는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한다.

도시는 브루클린을 '쿨하다'고 칭송한다. Aisha에게는 '쿨할' 시간이 없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부재는 도시적이고 정치적이다. 모두가 투기하는 동네, 그런데 진정으로 귀 기울여지지 않는 유일한 동네.

— Nando 퀸스

María Fernanda, 42세 - 잭슨하이츠, 세 개의 세계를 품은 그녀의

몸

María Fernanda는 에콰도르 출신이다. 그녀는 퀸스의 잭슨하이츠에 산다. 한 블록에서 열 가지 다른 언어가 쓰이는데, 그중 어느 것도 권력의 언어가 아닌 곳.

그녀는 밤에는 맨해튼에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낮에는 필요할 때 베이비시팅을 한다. 잠은 시간 단위로 사는 사치다.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있다. 하나는 키토에서, 하나는 뉴욕에서 태어났다. 큰아이는 왜 엄마는 늘 집에 없느냐고 묻는다. 작은아이는 엄마란 언제나 바쁜 사람이라고 여긴다.

María는 에콰도르에 남은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다. 그녀는 두 대륙을 떠받친다. 몸 하나로.

그녀의 삶은 끝없는 통근이다. 퀸스 → 맨해튼 → 퀸스. 느린 기차, 무거운 가방, 지친 다리.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 그녀가 돌보는 미국인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그녀는 'Mary'다. 청소 동료들에게 그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아주머니'다.

그녀의 부재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녀는 일하는 뉴욕을 돌아가게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서사에도 속하지 않는다.

나, Nando는, 어느 일요일 아침 루스벨트 애비뉴에서 그녀를 만나고 단 한 가지만 생각한다. 이 나라는 그녀 같은 여성들이 쓰러지게 두지 않기 때문에 겨우 서 있다. — Nando

브롱크스

Keisha, 29세 – 사우스브롱크스, 매일의 저항

Keisha는 사우스브롱크스에 산다. 낡은 건물, 잦은 사이렌, 싸구려 가게, 부서진 보도에서 노는 아이들.

그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약속과 사과 사이로 사라졌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저녁 교대로 일한다: – 빠른 계산 – 신경질적인 손님 – 1분 1분을 확인하는 매니저 – 결코 충분하지 않은 급여.

낮에는 뛰어다닌다: –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무소와 다투고 – 1달러 1달러를 세며 장을 본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 두 아이를 두 발로 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만 안다.

브롱크스는 여전히 문제로 그려진다. Keisha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해결책이다. 정치인들이 배경으로만 쓰는 동네를 떠받치는 어머니.

그녀의 부재는 구조적이다. 그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지만, 시스템에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 Nando

스태튼아일랜드

Gina, 45세 – 두 도시 사이의 보이지 않는 통근자

Gina는 스탠포아일랜드에 산다. 그녀는 맨해튼의 보험 사무소에서 일한다. 매일 같은 일과다.

– 버스 – 페리 – 지하철 – 사무실 –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맨해튼 사람들에게 스탠포아일랜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 위의 찢꼭지, 더미의 맨 밑바닥. 그러나 Gina에게 그곳은 집이다. 하지만 새장이기도 하다.

그녀는 직장을 바꾸고 싶지만, 제대로 된 기회는 모두 멀리 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 시간을 교통에 내준다. 매일 저녁 지치지 않고 싶지만, 도시는 그 변두리에 사는 이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녀의 부재는 시간적이면서 공간적이다.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곳에 살고, 자신을 이용하는 곳에서 일한다.

나, Nando는, 손에 커피 잔을 들고 페리 위에 서서 스카이라인 속으로 눈길을 잃은 그녀를 떠올린다. 그녀 앞에는 뉴욕. 그녀의 삶은 그 한가운데에 있다.

— Nando

Wall Street

Rachel, 37세 – 무너질 수 없는 여성.

Rachel은 금융 분야에서 일한다. 그녀에게는 평범할 사치가 없다. 그런 환경에서는. 여성으로서는.

그녀는 더 빨리 말하는 법을, 절대 어조에서 실수하지 않는 법을, 절대 망설임을 보이지 않는 법을 배웠다. 무너지면 아무도 용서해주지 않지만, 여성의 무너짐은 평생 낙인이 된다.

하루하루는 기계다. 숫자, 그래프, 통화, 회의, 꼬리를 무는 이메일, 비즈니스 만찬, 너무 큰 결과를 낳는 너무 성급한 결정.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텅 비어 있다. 슬픈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다. 일 바깥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에너지가 없다. 어설픈 관계, 깨진 우정, 멀어진 가족.

뉴욕은 콘퍼런스와 임파워먼트 행사와 패널 토론에서 Wall Street 여성들의 성공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고는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녀의 부재는 감정적이다. 그녀는 결정이 내려지는 모든 방에 있지만,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

이 이야기에는 교훈이 없다. 열린 점수가 있을 뿐이다.

— Nando

라틴계 보모

Dolores, 54세 – 어퍼이스트사이드, 남의 아이들을 키운다.

Dolores는 멕시코 출신이다. 그녀는 20년 동안 뉴욕에서 살았다. 20년 동안 결코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집들을 드나들었다.

그녀는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일한다. 거대한 아파트, 도어맨, 소리 없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퀸스에 있는 그녀의 방 한 칸짜리 아파트 전체보다 큰 부엌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을 '거의 가족'으로 여기는 한 가정에서 네 아이를 키웠다. '거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한 단어.

그녀는 아이들이 첫걸음을 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울음을 들었고, 눈물을 닦아 주었고, 간식을 만들었고, 학교에 데려다주었고, 그들의 오후를 영상으로 찍었고, 그들의 고백을 들었다.

그 아이들은 자라면 떠난다. Dolores는 남는다.

그날 저녁 그녀는 늦게 집에 돌아온다. 이제 다 자란 그녀의 친구들은 아직도 그녀에게 어떤 존경을 품고 있지만, 원망이 섞여 있다. 어린 시절 그는 그녀를 거의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느라 바빴다.

그녀의 부재는 이중적이다. 다른 이들의 삶에는 있는 어머니, 자기 가족에게는 없는 어머니.

그리고 미국은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게 일이야.”

— Nando

노숙인 여성

Monique, 51세 – 미드타운, 수백만 명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Monique는 잘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잔다. 때로는 쉼터에서, 때로는 닫힌 가게 진열창 앞의 골판지 조각 위에서, 때로는 어느 지하철역의 의자 위에서.

옛날에 그녀에게는 집이 있었고, 동반자가 있었고, 일자리가 있었다. 그러다 늘 그렇듯 소용돌이가 왔다. 병, 빚, 실직, 정신적 붕괴, 붙잡을 사람 하나 없음. 그녀는 흑인이고, 권을 넘었고, 거리에서 보내는 겨울마다 짊어지고 다니는 몸을 가졌다.

아침에 도시가 일터로 서두를 때, 그녀는 그곳에 있다. 같은 거리, 같은 모퉁이, 아무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같은 시선.

그녀의 부재는 완전하다. 시스템에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소비자도 아니고, ‘쓸모 있는’ 존재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Nando는, 뉴욕의 거리에서 한 여성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노골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녀가 여기까지 오도록 국가는 몇 단계를 건너뛰어야 했을까?

대답은 언제나 같다. 너무 많이. Nando

대형 병원

Sofia, 34세 – 두 교대 사이의 간호사, 쉴 틈 없는

숨

Sofia는 많은 이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병원에 들어선다. 교대 근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어떤 병동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맨해튼의 큰 병원에서 일한다. 끝없는 복도, 네온 불빛, 경보음, 모니터, 갈라진 목소리, 기계에 연결된 몸, 질문하는 가족들, 바빠 지나가는 의사들.

Sofia는 무너질 여유가 없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모든 부주의는 무겁게 짓누른다.

교대가 끝나도 그녀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끝나지 않는 이야기들 – 잊지 못하는 눈빛들 – 속삭여 전해야 했던 소식들 – 아무도 그녀에게서 덜어 줄 수 없는 책임들. 병원 밖에서 뉴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달린다. 안에서 그녀는 도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떠받친다.

그녀의 부재는 감정적이면서 제도적이다. 그녀는 의료 시스템의 심장에 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버팀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나, Nando는, 제복을 입은 이 여성들이 교대를 마치고 기진맥진해 나오는 것을 보며 단순한 한 가지를 깨닫는다. 언젠가 그녀들이 모두 함께 멈추기로 한다면, 도시는 48시간 안에 무너질 것이다.

— Nando

식당

Giulia, 27세 – 로어리스트사이드, 접시, 테이블, 그리고 짓눌린

존엄

Giulia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지만,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뉴욕 출신이다. 그림엽서 속의 리틀 이탈리아가 아니라, 로어리스트사이드의 한 식당에서의 끝없는 교대 근무.

그녀는 웨이트리스이지만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 즉석 심리 상담사 – 신경질적인 손님들의 피뢰침 – 주방과 홀 사이의 완충지대 – 보여 주기 위한 미적 존재 – 언제나 깨끗한 몸, 언제나 켜져 있는 미소

팁이 그 주가 먹고살 만한 주인지 겨우 숨 돌리는 주인지를 정한다. 기본급은 이 업계가 늘 그렇듯 우스운 수준이다.

저녁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진짜로 하는 일은 뭐예요?”

마치 그것이 ‘진짜’ 일이 아니라는 듯이. 그녀의 부재는 사회적이다. 배고플 때는 모두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문제가 되면 아무도 그녀를 생각하지 않는다.

나, Nando는, 돈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홀에서 여덟 시간 교대 근무를 해낼 수 있는 여성을 더 존경한다.

— Nando

크리에이티브 산업

Leah, 36세 – 브루클린, 결코 끝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의

두뇌.

Leah는 브루클린과 맨해튼의 한 제작사에서 작가이자 프로듀서로 일한다. 시리즈, 캠페인, 콘텐츠. 언제나 발명해야 할 무언가, 언제나 설득해야 할 누군가, 언제나 터무니없는 마감.

새 프로젝트 출범 파티에서 모두가 '비전', '스토리텔링', '새로운 서사'를 이야기한다. 아무도 잠 못 이루는 밤, 끝없는 수정, 도둑맞은 아이디어, '일에 대한 열정'으로 위장한 번아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Leah는 부시윅의 공유 아파트에 산다. 그녀는 '경력을 쌓았을'지도 모르지만, 도시의 비용이 모든 진전을 잡아먹는다.

그녀의 부재는 직업적이다. 뉴욕은 창의성을 자유로 팔지만, 그녀의 창의성은 예산, 통화, 터무니없는 요구, 끊임없는 압박에 묶여 있다.

그녀는 상상력을 만들어 낸다. 다른 이들이 그것을 돈으로 바꾼다.

— Nando

조각난 프리랜서

Priya, 33세 – 세 개의 일, 제로의 안정

Priya는 퀸스에서 인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녀는 교육을 받았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가득하지만, 뉴욕의 일자리 시장은 그녀에게 분명한 꾸러미 하나를 건넸다. 평생 프리랜서.

그녀는 자신을 '외부 협력자'라고 부르는 에이전시들을 위해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그녀의 이름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 브랜드들을 위해 콘텐츠를 쓰고, 가끔은 월세를 올리는 법에 관한 단기 강좌를 가르친다.

그녀에게는 휴가도, 병가도, 보너스도, 보장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책임만 있을 뿐이다.

낮에는 일을 납품한다. 밤에는 이메일을 확인하며, 또다시 "내일까지 기적이 필요해요"라는 메일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도시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 "여기서는 재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여기서는 재능이 있으면, 당신

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당신을 짜낸다.

그녀의 부재는 계약상의 부재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의 조각들, 캠페인, 프로젝트를 관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언제나 '외주'다.

나, Nando는, 당신 같은 사람의 얼굴에서 그 함정을 똑똑히 본다. 짝 찬 일, 텅 빈 삶.

— Nando

공공 주택

Tanya, 44세 – 이스트할렘, 어머니, 돌보는 사람, 표적

Tanya는 이스트할렘의 공공 주택 단지에 산다. 건물들은 낡았고, 관리가 엉망이며,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 나고, 계단은 닳아 있다.

그녀는 세 아이의 어머니다. 동네 학교에서 보조원으로 일한다. 월 세는 낮지만, 진짜 대가는 다른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

하루하루는 다음 사이에 나뉜다: – 일 – 학교 면담 – 도와야 할 이웃 – 보조금을 위한 관료 절차 – 복잡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불안 – 다툼 소리, 경찰, 사이렌.

그녀의 부재는 정치적이다. 그녀의 동네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사진이 필요할 때만 존재한다.

그러는 동안 동네를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그녀, 그리고 그녀 같은 여성들이다. 그녀들은 모든 것에 맞서는 벽처럼 기능한다.

뉴욕은 개발, 재생, 투자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어떤 건물들의 계단을 올라가 보면, 많은 곳이 몇 년째 버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 Nando

가정 폭력

Rosa, 38세, 퀸스, 두려움과 서류 사이에 갇힌.

Rosa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다.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퀸스의 한 구역에 있는 공유 아파트에 산다.

그녀에게는 띄엄띄엄 일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는 번갈아 가며 이렇게 한다. 사과하는 날, 고함치는 날, 밀치는 날, 때리는 날. Rosa가 떠나지 않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 그녀는 두렵다 – 그녀에게는 돈이 없다 – 그녀는 이 나라의 체류 허가를 잃을까 봐 두렵다.

밤에 그가 잠들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한다. 아침에는 명을 가리려고 화장을 하고 빨래방으로 일하러 간다.

시스템은 그녀에게 말한다. “전화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벗어나세요.” 하지만 현실은 더 더럽다. 짝 찬 쉼터, 대기자 명단, 과로한 사회복지사, 실질적인 보호는 거의 없음.

그녀의 부재는 법적이다. 그녀는 법, 서류, 두려움, 그리고 대안의 부재가 만든 공백 속에 갇혀 있다.

나, Nando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안다. “그가 원하면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이 세상이 만들어 낸 가장 거짓되고 비겁한 말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 Nando

초정통파 동네

Chaya, 29세 – 버러파크, 태어나기 전에 정해진 삶.

Chaya는 브루클린의 버러파크에 산다. 초정통파 유대인 동네. 엄격한 규칙, 닫힌 공동체, 정해진 역할.

그녀의 삶은 그녀가 의견을 가질 수 있기도 전에 결정되었다: – 믿기 힘들 만큼 어린 나이의 결혼 – 많은 아이 – 실질적인 자원의 부재 – 중심에 놓인 종교 공부 – 위협으로 여겨지는 바깥세상.

그녀의 하루는 딱 차 있다. 집, 아이들, 장보기, 요리, 의례, 끊임없는 요구. 진정한 침묵의 순간은 결코 없고, 그녀만을 위한 공간도 결코 없다. Chaya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이 있다. 던질 수 없는 질문들. 저 바깥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짐작은 있지만, 그곳에 이를 지도는 없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고 영적이다. 그녀는 자기 세계의 모든 몸짓 속에 있지만, 구조와 분리된 개인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뉴욕은 다양성에 박수를 보내지만, 일부 여성들이 다른 이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문화적 새장 속에서 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 Nando

네일 샵

Li Mei, 41세 – 플러싱, 완벽한 손, 소진된 삶

Li Mei는 퀸스 플러싱의 네일 샵에서 일한다. 손님 뒤에 손님, 손톱 뒤에 손톱, 매니큐어 리무버 냄새를 풍기며, 마스크를 쓰고, 등을 구부린 채.

그녀는 10년도 더 전에 중국에서 왔다. 곧바로 일을 찾았다. 현금, 긴 교대 근무, 묻는 것이 거의 없는 일.

그녀는 일주일에 엿새, 하루 열 시간 일한다. 때로는 그보다 더.

손님들에게 그녀는 가게의 부속품이다. '손톱을 잘하고 말이 없는 아주머니!'

아무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 그녀의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남는지 – 얼마나 자주 화학 물질을 들이마시는지 – 건강 보험이 있는지 – 밤에 아프지 않고 잠들 수 있는지. 그녀의 부재는 화학적이고 사회적이다. 그녀는 네온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닳아 간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아무도 그녀의 손이 어떤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나, Nando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돈을 세는 그녀를 떠올린다. 이윤이 아니라 여유분을. 물 위에 떠 있느냐, 조금 더 깊이 가라앉느냐의 차이를.

— Nando

밤의 여성

Jasmine, 28세 – 타임스스퀘어, 눈부신 불빛, 연약한 삶

Jasmine은 자정 이후에 살아나는 클럽들에서 일한다. 그녀는 예술을 위해 춤추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춤춘다.

그녀는 긴 교대 근무, 어두운 복도, 너무 많이 웃는 매니저들, 서비스를 권리로 착각하는 손님들 속에서 일한다.

그녀는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열 가지 규칙을 배웠다: – 웃어라 – 믿지 마라 – 혼자 있지 마라 –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마시지 마라 – 두려움을 보이지 마라 – 눈을 뜨고 있어라 – 친구를 사귀지 마라 – 어떤 약속도 믿지 마라 – 멈추지 마라 – 늦게 혼자 집에 가지 마라.

매일 밤은 보이지 않는 줄 위의 곡예다. 아무도 그녀를 지켜 주지 않는다. 클럽도, 경찰도, 도시도.

그녀의 부재는 도덕적이다. 모두가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녀를 노동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나, Nando는, 새벽에 클럽을 나서는 여자들을 볼 때 안다. 힘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생존이다. — Nando 배달하는 여성 Karla, 30세 – 퀸스 → 맨해튼, 비, 눈, 더위, 언제나 거리 위에 Karla는 자전거로 일한다. 등에는 보온 가방, 핸들에는 휴대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앱: – 경로 – 보수 – 시간 – 벌점 – 다음 주문 그녀는 시스템의 ‘스마트한’ 부분이다.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부분. 그녀는 자동차, 택시, 움푹 팬 도로, 용서 없는 신호등 사이를 손살같이 지나간다. 빗속에서, 눈 속에서, 얼굴을 얼리는 바람을 맞으며 페달

을 밟는다. 모두 한 방울씩 떨어지듯 들어오는 몇 달러를 위해서. 그날 저녁, 그녀는 기진맥진해 집에 돌아온다. 보호도, 안전도, 보험도 없다. 그녀의 부재는 디지털이다. 그녀는 앱 안에서만 존재한다. 바깥에서는 아니다. — Nando 퀸스 낄숙한 곳의 싱글맘 Erika, 33세 – 파로커웨이, 바다와 거리와 가난 사이에서 파로커웨이는 뉴욕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외지고, 끊겨 있고, 잊혔다. 도시가 통계에만 쓰는 지역. Erika는 그곳에서 두 아이와 산다.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매일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 아이들을 키우고 – 옷을 입히고 – 아침을 차리고 – 학교에 데려다주고 – 일하러 달려가고 – 손님, 저울, 계산대를 다루고 – 아주 오래 걸리는 버스로 집에 돌아오고 – 요리하고 – 청소하고 –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녀는 세 개의 삶을 사는 어머니다. 자신의 삶, 아이들의 삶, 그리고 동네의 삶.

그녀의 부재는 지리적이다. 그녀는 보이기에는 너무 멀리 산다.

나, Nando는, 지도와 거리를 보며 한 가지를 안다. 파로커웨이에 사는 이들은 매일 보이지 않는 핸디캡을 안고 산다.

— Nando

브루클린 흑인 공동체의 여성

Latoya, 40세 – 브라운즈빌, 생존의 일과

브라운즈빌은 뉴욕에서 가장 상처 입은 동네 가운데 하나다. 오래된 가난, 열악한 서비스, 방치된 학교.

Latoya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아침에는 학교에서, 저녁에는 양로원에서.

그녀의 하루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 여유도 없다. 쉴 틈도 없다.

매달 당신은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해야 한다. 월세? 공과금? 음식? 교통비? 약?

그녀의 부재는 인종적이다. 스스로를 '진보적'이라 부르기 좋아하는 도시에서, 가난한 동네의 흑인 여성들은 가장 나중에 사라지고, 온라인에 올릴 비극이 있을 때에만 다시 보이게 된다. — Nando 테크 업계의 여성 Hannah, 29세 – 맨해튼, 스타트업, 불안, 압박, 가식 Hannah는 '다양성', '포용', '미래',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 – 꼭대기에 있는 남자들 – 결정을 내리는 남자들 – 프로젝트를 이끄는 남자들 – 자금을 받는 남자들. Hannah는 보이지 않는 일을 모두 한다. 조직하고, 편집하고, 발표하고, 고객을 상대하고, 비상 상황을 처리한다. 그녀는 유능하다. 너무 유능해서 모두가 그녀를 이용한다. 그녀는 불안과 번아웃 때문에 1년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녀의 부재는 문화적이다. 테크는 현대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은 낡았다. 나, Nando는, 그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 Nando 서류 없는 이민자 Yaritza, 26세 – 브롱크스, 어디서나 일하고, 숨어서 산다. Yaritza는 국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도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세 곳의 보통이 아닌 곳에서 일한다: – 아파트 건물 청소 – 델리 주방 – 필요할 때 베이비시팅.

그녀는 현금으로 받는다. 안전도 없다. 보호도 없다. 권리도 없다.

그녀는 경찰이 두렵고, 이민국이 두렵고, 집주인이 두렵고, 신고 하다가 자신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까 봐 두렵다.

그녀의 부재는 법적이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의 틈에서 산다.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

— Nando

도망 중인 이민자 여성

Maha, 37세, 아스토리아에서, 강제 결혼을 피해 달아난다.

Maha는 2년 전 중동에서 왔다.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 그녀의 자유를 원하지 않던 가족, 여성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문화를 뒤로하고 떠났다.

뉴욕에서 그녀는 아스토리아의 공유 방에 산다. 식료품점에서 일한다. 저녁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영어를 배운다.

그녀는 마음속에 오래된 두려움을 품고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낼 것이라는. 모든 것이 되돌아갈 것이라는. 자유가 끝날 것이라는. 그녀의 부재는 정서적이다. 그녀는 반쯤 존재한다. 한 발은 새 삶에, 한 발은 영원한 도주에.

뉴욕은 그녀에게 사라질 기회를 주었다. 이제 그녀는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Nando

길과 지하철과 소음과 경주의 수많은 마일 위의 여성

Elena, 50세 – 맨해튼, 집어삼키는 도시에서 보낸 한평생.

Elena는 30년 넘게 이 도시에서 살았다. 그녀는 동네와 건물과 가게와 얼굴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친구들이 떠나고,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남았다.

그녀는 백화점에서 관리자로 일한다. 긴 교대 근무, 무거운 책임, 끊임없는 압박. 그녀는 팀을 이끌고, 손님을 상대하고, 망쳐졌어야 할 하루들을 구해 낸다.

Elena가 진짜 뉴욕이다. 영화에 나오지 않는 뉴욕.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뉴욕. 불평하지 않지만 모든 타격을 느끼는 뉴욕.

그녀의 부재는 실존적이다. 그녀는 도시에 모든 것을 주었고, 도시는 그녀에게 버팀만을 돌려주었다.

나, Nando는, 이곳에서 20년을 산 여성들을 만날 때 어떤 관광객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를 이해한다. 뉴욕에서 산다는 것은 느린 전쟁이다. 그리고 남는 이들은 축하도 없이 매일 이긴다.

— Nando

에필로그

뉴욕은 보이기를 요구하지만 결코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는 도시다. 청하지 않은 선거처럼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당신을 짓밟는다.

이 완벽한 혼돈 속에서 여성들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축이다. 그녀들은 기차에, 주방에, 병원에, 학교에, 고층 빌딩에, 창고에, 권력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 동네에 있다. 그녀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필요할 때만 고려된다.

도시는 삶 자체보다 빨리 달리고, 그 경주 속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떠받치는 이들을 소모한다. 뉴욕은 모든 것을 약속한다. 성공, 기회, 구원. 그러고는 말하지 않은 대가를 요구한다.

진실은 단순하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는 결코 표지에 오르지 않는 여성들의 등 위에서 번성한다.

이 장은 그녀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하나씩. 이야기 하나씩. 걸려 내지 않고. 낭만화하지 않고. 곧은 등으로, 모든 삶이 그럴 자격이 있듯이. 수백만 명의 다른 이들의 무게를 짊어지면서도 무시당하는 삶.

성찰

이 책의 각 주는 한 가지 유형의 부재를 보여 준다. 뉴욕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다. 이곳에서 여성의 부재는 총체적이고 몇 배로 불어난다: – 시간의 부재– 보호의 부재– 정신적 공간의 부재– 인정의 부재– 경청의 부재– 쉼의 부재– 자율적 정체성의 부재– 준 것에 대한 보답의 부재.

자유라는 관념을 파는 도시가, 수천 명의 여성을 그녀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도록 몰아붙이는 바로 그 도시다. 그녀들은 필수적이지만 소모품이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엔진이지만 서사가 아니다.

뉴욕에서 모든 여성은 서로 다른 싸움을 하지만, 모두 같은 땅을 공유한다. 멈추지 않는 도시, 그녀들의 고투 앞에서조차 멈추지 않는 도시.

바로 그래서 이 페이지들이 필요하다. 뉴욕은 스카이라인, 예술, 문화, 성공만이 아니다. 부재이기도 하다. 여성의 부재. 가장 외면당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끊임없는.

개인적인 메모

뉴욕은 나의 집이다. 그리고 바로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그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관광객, 신문, TV 시리즈, 또는 다른 사람들의 꿈이 보는 도시를 묘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숨 쉬고, 피 흘리고, 진짜 사람들의 어깨 위에서 매일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는 도시다.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이해할 만큼 충분히 보았다. 이곳의 여성들은 두 배를 짊어지고 절반을 얻는다. 약해서가 아니라, 도시가 그녀들의 힘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힘에 익숙해지면, 세상은 당신을 지켜 주기를 멈춘다. 나, Nando는,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이야기들을 썼다. 이 기계 전체를 움직이는 이들이 서사에서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도시의 소음이 그 도시를 떠 있게 하는 삶들의 소리를 덮어 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뉴욕은 아름답지만, 결백하지 않다.

이 페이지들은 그것을 말하는 나의 방식이다.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진실을 한 톨도 덜어 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 Nando

Ferdinando Frega